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센터 이경전 센터장

후만니타스 중심의 인문 · 사회학적 빅데이터 연구소

사회문제의 패턴 분석하는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사이언스

지난 2014년 글로벌 IT계를 강타한 최대 화두는 단연 '빅데이터'였다.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혁신으로 인해 매일같이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급증해가는 디지털 정보량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과 용어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가 바로 '빅데이터(Big Data)'이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단순한 IT 트렌드를 넘어 경제, 사회 현안의 실마리로 주목 받고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 기술은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가치 창출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재/임승민 기자



인간 중심 접근의 IT 과학

IT 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 연구를 위해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센터는 지난 2013년 10월에 설립되었다. 기업을 경영하는 주요 패러다임이 시대별로 변모하는 것처럼, 정보화 패러다임도 컴퓨팅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 모바일 스마트 기기 보급으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2012년 이후 도래한 빅데이터 시대는 공공부문의 서비스 영역, 기업 및 일상적인 측면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그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빅데이터 연구센터는 미래의 핵심 자원이 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국가산업의 성장 동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과 연관된 학술연구를 통해 빅데이터 어널리틱스,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향후 방향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업계 전문인력의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2014년 한국연구재단 선정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된 경희대 빅데이터연구센터는 지원사업을 통해 2024년 완전자립을 모색하고 있으며 IBM, 액션뷰어 등의 빅데이터 전문기업 및 자문기업과의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벤플이나 (주)올원웨어 등 빅데이터 발생이 많은 기업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 연구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경전 교수(빅데이터 연구센터장)는 "저희 빅데이터 연구센터는 '후마니타스' 중심의 빅데이터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인문사회과학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의 최종 수혜자인 인간 중심의 연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센터의 빅데이터 연구는 그간의 연구가 '데이터 중심'으로 진행됐던 것에 비해 인간 중심 접근의 인문·사회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은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에 비해 지금까지는 공급자 위주의 이용에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인간 존엄성, 사회문제, 빅데이터 소유권 문제, 온라인에서 잊힐 권리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재 양성

빅데이터는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 것보다, 무엇을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명명한 목적 의식과 인문사회과학 기반의 통합적 해석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이 아닌, 인간 본연의 가치를 대변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높은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연구센터는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인간 행동과 심리 및 패턴 데이터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면서 빅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를 같이 연구하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사회 분석 연구 환경에서 사회에 기여할 사회과학 기반 빅데이터 연구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공학자, 데이터 분석과학자 양성이라는 기존의 공학 중심 빅데이터 연구 기관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원의 빅데이터 전공과 소셜네트워크 과학과에서 수업과 연구를 병행하며, 산업 및 지역사회,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요구 사항을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연계된 요구사항은 연구 보고서 및 논문으로 작성해 가시적인 결과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경전 센터장은 "저희 연구소의 교수진들은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의 빅데이터 경영전공, 경영대학원 디지털경영 MBA 과정의 빅데이터 전공, 그리고 일반대학원 협동과정 소셜네트워크 과학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분야를 인문 사회과학분야에 자연스럽게 융합시킬 수 있도록 전문 연구인력 및 산업 전문가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센터에서 수행하는 '후마니타스 중심 빅데이터 연구'는 인문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이 통합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학제적 연구의 가능성을 제공하며 궁극적인 '가치 창출'을 위한 목표로 다가서고 있다. 또한 각 학문의 이론과 다양한 인문사회학 분야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학술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창출된 가치는 연구소 및 산업체, 지역사회,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문제와 정보 불균형, 개인정보 소유권 등의 이슈는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센터는 이러한 사회문제의 패턴을 분석하고 효율적이고 더 나은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인프라와 기술, 서비스,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 변화를 촉진시키게 될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센터. 이들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의 양분이 되기를 기대한다. ■